

주제발표 2

다정·다감·다양을 지키는 미래 교과서*



오예림

울산중산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기

매일 들여다보는 교과서에 나의 아이디어가 함께 들어간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소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막상 교과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마음은 먹었으나 교과서가 담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앞섰다. 또한, 많은 집필진의 연구 산출물인 현재 교과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떠한 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윤세민(2015)에 따르면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가적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가장 기본적인 학습 지도서로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과 지식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의 발전을 위해 교과서의 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편집디자인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미영·김미숙·홍준우(2020)는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용 자료이므로 다른 단행본이나 매체보다 색채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저학년일수록 텍스트보다 그림, 사진, 삽화 등의 구체적인 표상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어 색채에 대

* “2022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교원 부문 금상)”으로 2022년 10월 25일 교과서 포럼 주제발표 원고를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한 질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교과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면서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색, 배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과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책무성을 느꼈다. 이러한 첫걸음으로부터 시작해 교육과정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들의 감각도 담으며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교과서를 제안하고자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여러분은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과서를 생각하는 동안에도 교과서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교사라는 확신이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동안, 방과 후에도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수업을 준비하는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업 도중 학생들이 학습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교과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학생들이었다. 손으로 교과서 종이 위에 글을 직접 쓰고, 교과서 구석 구석에 존재하는 삽화를 살펴보며 틀린 그림을 찾거나 재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글에 감동하거나 주인공이 곤경에 처하면 아쉬워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반동 인물에 아낌없이 화를 내는 것도 학생들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망설임 없이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로 학생들이 적어서 낸 글에는 많은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중에서 공통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을 발췌하여 본 글에 실어보았다.

먼저, 협력적 소통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많았다. 실제로 학급 내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상태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들여다보는 교과서도 자신들의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충실히 담는 형태이기를 많이 바라고 있었다.

다음으로 밝은 색감 및 다양한 디자인을 원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많은 6학년 선생님이라면 공감할 얘기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밝은 색채, 높은 명도의 색을 걸치고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그 나이 또래의

멋인가 보다 짐작한다. 하지만 막상 활동지 등에 자기자기하고 밝은 색채의 이미지가 제공되면 누구보다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는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학급 캐릭터 만들기 등에도 무심한 척 시작하지만, 곧잘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감각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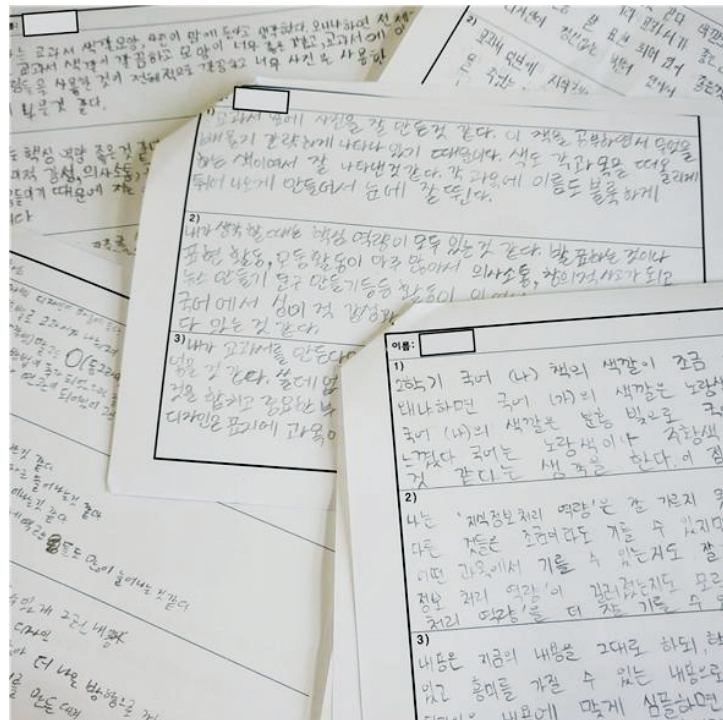


그림 1 — 학생들의 의견서

마지막으로 역량 함양에 대한 인식 부재이다. 역량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 학습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경애·신태수·김성경·최영인(2016)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동기, 학습 태도 및 학습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 함양 정도를 인지할 수 있다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다정·다감·다양한 교과서 훑어보기

가. 의미



그림 2 — 다정·다감·다양한 교과서의 의미

현재의 교과서 중 구체화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다정·다감·다양한 교과서이다. 이때 다정·다감·다양에서 ‘다(多)’는 “많음, 이전보다 나은, 중(重)히 여기는”을 의미한다. 과연 무엇을 많게, 어떠한 것이 이전보다 나으며, 어떤 점을 중히 여기는 것이 다정·다감·다양한 교과서일까.

먼저, 다정한 교과서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이 우수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및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구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학생을 양성하고 교육목표 도달을 보조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다감한 교과서란 학생들의 다채로운 감각을 담을 수 있는 교과서를 의미한다. 정민경(2018)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미술 표현 자체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 주어진 삽화와 디자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교과서에서부터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과서란 교육과정 속 역량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를 의미한다.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들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인지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를 의미한다.

나. 다정한 교과서

다정한 교과서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은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이 목표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활동 제시이다.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제재글 감상 및 분석으로 인해 성취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활동을 축소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제재글은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 자료일 뿐 그 자체를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바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글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사고 흐름에 맞는 질문 만들기 활동이 필요하다. 안부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고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자 질문 생성 활동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궁금증’에 집중하여 질문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위치를 고려하여 질문을 생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경화(2021)는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와 질문 생성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유의미한 활동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즉, 제한적인 질문 만들기 활동에서 벗어나 제재글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사고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질문 만들기 활동을 구성하기로 했다.

셋째, 문학의 아름다움을 체현할 수 있는 삽화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 곽춘옥(2014)은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아동은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공감적 정선의 원인을 이해하고 하나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고학년은 문학 작품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지적·정서적 감정을 가지고 작품에 반응할 줄도 안다고 했다. 이러한 아동들의 표현 수준을 반영하여 글을 읽는 과정에서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 교육과정 목표를 구체화한 활동

예시로 설명할 차시는 6학년 2학기 국어(가) 1단원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 쓰기이다. 해당 차시의 핵심 성취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 국어(가) 1단원 핵심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문학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	[6국02-0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문학	[6국05-0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표 2 — 다정한 교과서를 위한 아이디어 비교

기존 교과서

변경 교과서

6. 「마지막 순바꼭질」의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봅시다.

(1) 이 글의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 보세요.

(2)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들을 자신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정도를 전수에 표시하고 서로 연결해 가치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치 도표와 비교하여 말해 보세요.

The diagram is a value map with a central point labeled '0'. Five lines radiate from the center to five points on a circle, each labeled with a number: 1, 2, 3, 4, and 5. The points are arranged in a circular pattern, with 1 at the top, 2 at the top-right, 3 at the bottom-right, 4 at the bottom-left, and 5 at the top-left.

(3) 이 글의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다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인물이 살은 그런 삶을 원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해요. 작품 속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줘요.

8.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봅시다.

	아버지	나
공통점	글에서(의 아버지)와 나는 둘 다 생명존중을 잘하고 끈기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버지는 소방관으로서 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도 평소엔 화기 식은 일이라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한다. 또,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이점	글에서(의 아버지)는 도전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아버지와 반대로 도전보다 안전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 안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도전해볼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때 실패할 것 같거나 내가 잘 못하는 일은 먼저 도전하지 않기도 했다.	

말해하고 소통해요

8.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여나의 삶에 대한 다짐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봅시다.

주현

아버지처럼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승기

지금처럼 본
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현

슬피만 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겠다.

지민

무슨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9.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어 잘 공부했는지 떠올리며 느낌을 설명해 봅시다.

인물의 삶과 나의 삶을 관련시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소중한 여파를 할 가치를 잘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표 1〉을 살펴보면 성취기준 상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 2〉의 기존 교과서로 보자면 현재 교과서의 마지막 장의 반 이상이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짓고 이에 대해서 가치 도표를 만드는 활동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다짐을 친구들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라고 지시만 할 뿐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다짐을 해보았는지 어떤 점에 대해 느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한 내용은 〈표 2〉의 변경 교과서와 같다. 학생들이 나와 인물의 가치를 직접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 뒤 느낀 점을 글로 먼저 써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직접 되돌아보고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 비교로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 역시 가치 내면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때, 친구들의 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볼 수 있고 친구의 삶이나 의견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피드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핵심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과정, 결과, 피드백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제재글 전반에 걸쳐 질문 만들기 활동 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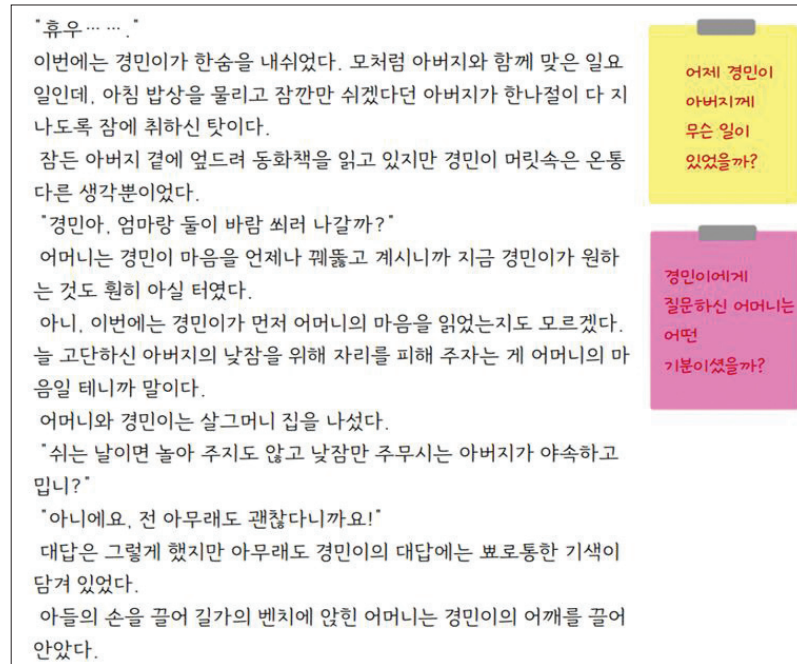


그림 3 — 붙임 딱지 아이디어 제안

기존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글을 다 읽고 종이를 넘겨서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을 만든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의문부터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궁금증 등을 떠올리고는 한다. 하지만 이 수많은 질문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다. 그래서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이미 잊어버리게 된다. 결국 학생들의 유의미한 질문들은 아예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되거나 해답을 찾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기억 너머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붙임딱지를 활용하여 언제든지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내용 질문, 추론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빈 공간에 직접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내용 질문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 질문 만들기 활동을 위한 형식적인 질문이 되기 쉽다. 붙임딱지를 활용하여 제재글 전반에 걸쳐 질문 만들기 활동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3) 삽화에 참여하여 문학의 아름다운 표현하기

실제로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도, 글을 읽고 난 후에도 교과서 귀퉁이에 낙서하는 경우가 많다. 그 모습만 보고 있을 때면 단순히 심심해서, 혹은 지루해서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낙서를 잘 살펴보면 내용과 관련된 낙서를 할 때가 있다. 새롭게 접하게 된 낱말이나 대사를 따라 써보기도 하고 글에서 나온 인물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림에 나온 인물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고칠 때도 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소소한 옷을 입은 인물들이 각자의 성격에 맞게 개성 있는 옷을 갈아입고는 한다. 글을 소화하고 난 후에 이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삽화 대신 학생들이 글을 읽고 난 후 읽으면서 인상 깊은 장면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자신이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선택하고 글뿐만 아니라 사실적 표현, 추상적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다. 다감한 교과서

다감한 교과서를 실천하기 위해 표지의 이미지와 디자인 색감에 변화를 주었다.

첫째, 학생의 역량을 함양하는 모습을 담은 표지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의 표지는 풍경 사이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풍경의 그림이 커서 학생들의 모습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고자 불필요한 이미지는 과감히 삭제하고 역량을 함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주로 담아보았다. 또한, 표지에 동기 유발을 위한 다짐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성취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고채도, 증명도 이상의 다채로운 색감을 교과서에 담았다. 기존의 저채도, 증명도 위주의 색깔에서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채도는 최대한으로 높이고 명도 역시 중간 이상의 색을 사용해보기로 했다.

셋째,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직접 교과서 디자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미지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도 어려우며 학생들이 지속해서 학습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교과서 디자인 완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표지



그림 4 — 표지 아이디어 제안



그림 5 — 다짐 공간 마련

[그림 4]와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표지에 담았다. 그중 디지털 및 AI 교육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메타버스 세계관을 차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플랫폼 이미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조은영·양명희(2018)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습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내적 목표형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구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외적 목표형 학생과 비교했을 때 수업 장면에 대한 정적 정서를 부정적 정서보다 월등히 많이 지각하여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그림 5]와 같이 학생들의 내적 동기 유발을 끌어내기 위해 교과서를 학습하기 전 다짐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 다짐을 적으면서 한 학기 동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인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접할 때마다 학기 시작 때 작성한 자신의 다짐을 마주하며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채도, 중명도 이상의 다채로운 색감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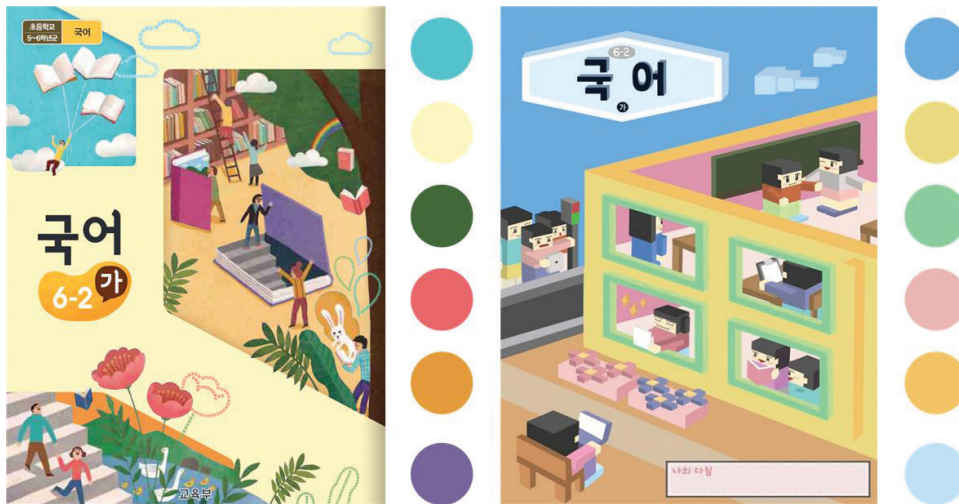


그림 6 — 이전 교과서와 색감 비교하기

윤세민(2015)은 적절한 다색도 구사를 통해 교과 내용의 표현과 전달을 좀 더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색을 추출했을 때 기존 교과서 표지는 학생들의 학습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다소 어두운 색감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도, 중명도 이상의 다채로운 색감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표지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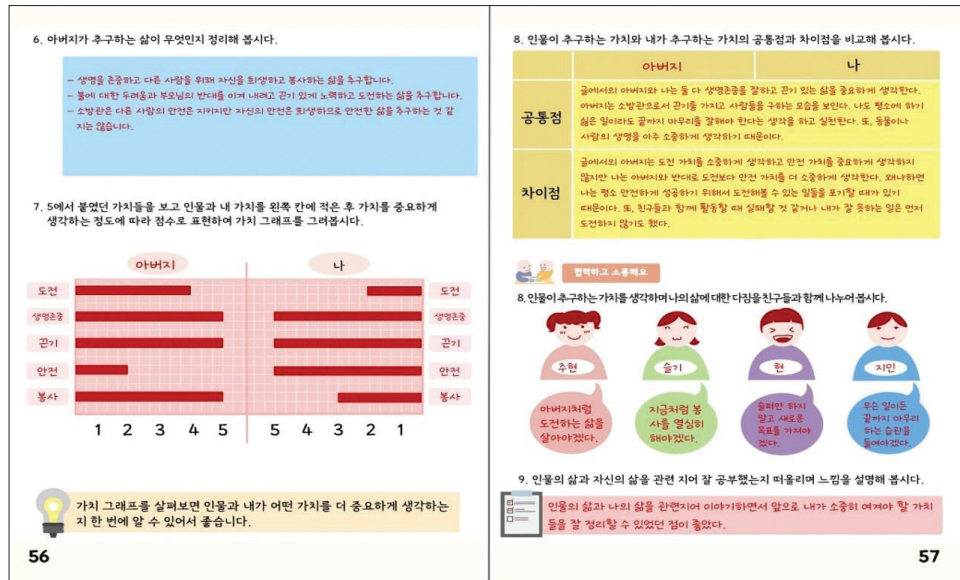


그림 7 — 교과서 내부 색감

또한, [그림 7]과 같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고채도와 증명도 이상의 색감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색 조화를 맞추었다.

3) 교과서 디자인 제작에 참여하기



그림 8 — 교과서 디자인 제작 참여하기

다정한 교과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과서 삽화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으로 소통한 친구들의 특징을 살려 소통 과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모두 친구들의 이름도 써넣고 친구의 표정, 머리 모양과 비슷한 캐릭터를 제작하게 된다. 학생들은 모두 같은 교과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여한 디

자인의 교과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 다양한 교과서

다양한 교과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지에서부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 고자 했다.

첫째, 직관적인 아이콘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함양하고 있는 역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교과서는 역량 함양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는 역량 인지 기회가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려면 직관적인 아이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자기 관리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되돌아보기 활동 및 소감 적기 활동을 제공했다. 자기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기존 교과서에서도 마련된 공간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차시의 끝으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 기회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정 중간에도 되돌아보기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적 소통 활동 기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모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었다.

1) 직관적인 아이콘을 통한 역량 함양 인지 기회 제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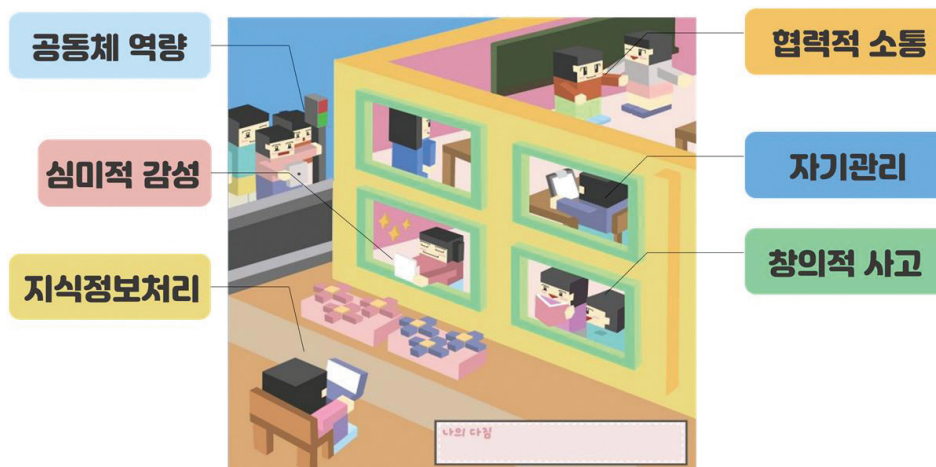


그림 9 — 학생들의 역량 표지에 담기

먼저, 표지에는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담아보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표지 전반에 걸쳐 역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들을 위주로 하여 평소에도 자신들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 모습과 역량 함양 중인 모습을 비교하며 이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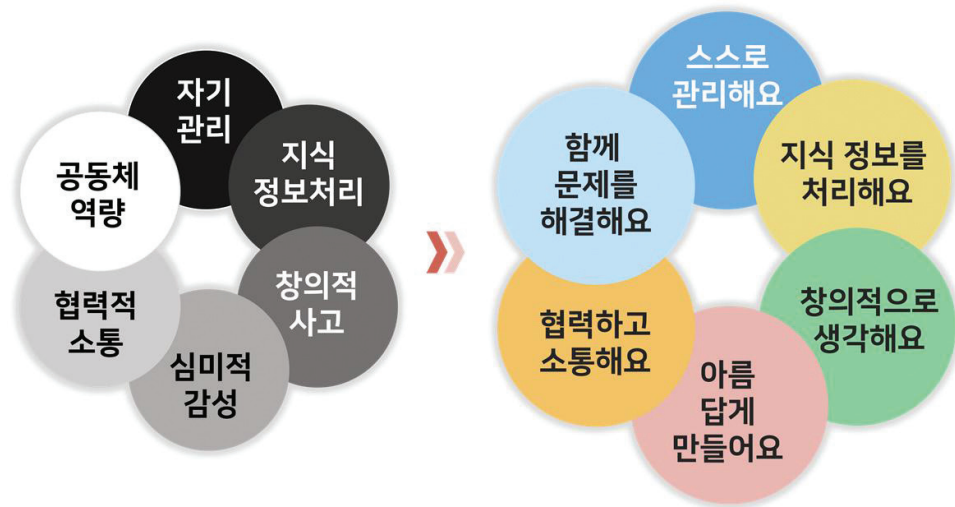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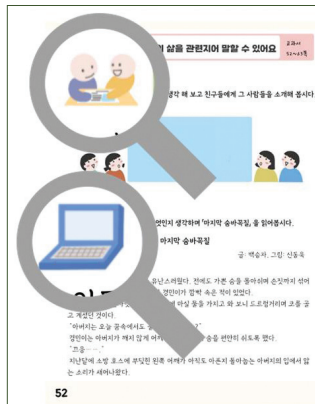


그림 10 — 역량 이름 변경

또한, 자기 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과 같은 용어 대신 ‘스스로 관리해요’, ‘지식 정보를 처리해요’,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협력하고 소통해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와 같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활용하여 표현했다. 학생들은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함축적인 낱말 대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용어를 활용하여 역량 함양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도록 했다.



지식 정보를 처리해요

3. 이야기 구조에 따라 「마지막 숨바꼭질」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스스로 관리해요

4. 인물의 삶을 잘 파악하면서 읽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협력하고 소통해요

1.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을 소개해 봅시다.

그림 11 — 역량 아이콘

이창욱·박광신(2018)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교과서는 밝고 부드러운 컬러가 강조되는 그래픽 요소와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권혁미(2017)는 시각이미지 자체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하는 형태로 선별되어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학습해야 할 개념과 지식을 내포해야 함을 말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용어를 문장뿐만 아니라 아이콘으로도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이 아이콘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이 함양 중인 역량을 인식하고 학습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인지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체감하고 자아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2) 스스로 되돌아보기 활동 및 소감 적기 활동

표 3 — 자기 관리 역량

관리 1	관리 2								
<p>스스로 관리해요</p> <p>4. 인물의 삶을 잘 파악하면서 읽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스스로 확인해보기</th></tr> <tr> <th>항목</th><th>확인하기</th></tr> </thead> <tbody> <tr> <td>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했어요</td><td>☆</td></tr> <tr> <td>여러자의 삶의 태도를 잘 이해하면서 읽었어요</td><td>☆</td></tr> </tbody> </table> <p><small>* ☆: 아주 잘했어요 ○: 잘했어요 △: 노력했어요</small></p>	스스로 확인해보기		항목	확인하기	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했어요	☆	여러자의 삶의 태도를 잘 이해하면서 읽었어요	☆	<p>9.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어 잘 공부했는지 떠올리며 느낌을 설명해 봅시다.</p> <p>인물의 삶과 나의 삶을 관련지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소중한 여겨야 할 가치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p>
스스로 확인해보기									
항목	확인하기								
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했어요	☆								
여러자의 삶의 태도를 잘 이해하면서 읽었어요	☆								

자기 관리 역량 함양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 중간의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활동을 제공했다. 이러한 되돌아보기 활동은 과정 중심 평가

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학생들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제재글을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와 더불어 차시의 정리 단계에서 해당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칸을 마련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학습 후 교사의 정리 멘트로 수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되새기고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모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 실현


곽재호·이경화(2017) 연구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하브루타식 토론수업은 학생들의 타당성, 정교성 및 독창성 등의 창의력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그림 8]과 같이 학생들이 학습 과정 중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산출물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참여형 활동에 대한 흥미를 충족하기 위해서 협력적 소통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도와야 한다.

4. 마치며

다정·다감·다양한 교과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현, 성취기준에 집중한 내용 구성 등으로 완성된 교과서 형태이다. 현재의 교과서가 완성되기 이전의 교과서들은 학습 목표가 교과서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교과서에 있는 제재글, 기능을 익히는 것이 주 목표였으며 학생들이 교과서에 게재된 학습자료를 소화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이러한 친절한 교과서는 학생들을 막힘없이 이끌고 나갈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폭넓은 창의성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과도기를 지나 현재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교과서가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교과서와 그 외의 생활 속 자원을 탐색하여 직접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는 더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 된다. 학습자료 제공으로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목표를 자료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대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자료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습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자료로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면 학생들이

학습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면서 교과서 속 자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자료들을 자발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사, 학습 수준 등 자신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미래 교과서를 위해 다각도의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가 제공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생동감 있게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잘 담을 수 있는가'이다. 즉, 미래 교과서의 출발점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고려하고 이를 잘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초등학교 5~6학년군 6-2 국어 교과서
 박재호·이경화(2017). 하브루타식 토론수업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9(3), 467-488.
 박춘옥(2014). 초등학교 문학 영역 성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람어문교육*, 49, 377-411.
 권혁미(2017). 미술수업에서 시각 이미지가 학습자에게 갖는 의미 탐구.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50, 25-46.
 김정은·이경화(2021). 초등교사의 '질문 생성 활동' 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2015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70, 103-122.
 안부영(2021). 2015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의 질문 만들기 활동에 대한 개선 방향 제안. *새국어교육* 127, 33-53.
 윤세민(2015).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1(4), 41-79.
 이창욱·박광신(2018). 학습흥미 유발을 위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디자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12), 555-561.
 정미영·김미숙·홍준우(2020). 머신러닝을 활용한 초등학교 3~4학년군 음악교과서 일러스트의 색채 분석. *예술교육연구*, 18(2), 93-118.
 정민경(2018). 초등학교 인성 함양 중심 미술 표현활동 방안- 존중과 협동을 중심으로 -. *미술교육연구논총* 55, 185-216.
 조은영·양명희(2018).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형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6), 397-406.
 진경애·신태수·김성경·최영인(2016). 초등 국어, 수학, 영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메타 인지적 변인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9(1), 227-254.

필자 소개

현재 울산중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2022년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다. 디자인, 구성 등에 관심이 많아 공모전에 참가하며 교과서 연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